

붓다, 스님, 절 속에 내포된 불교정신 설명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스님, 한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절, 몸과 마음을 내려 놓다
각권 백이십 원 | 윤주사 펴냄 | 9천원~1만원

이 시리즈는 불교라는 큰 바다를 향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그 향해 중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기획됐다.
먼저, 불교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주제를 뽑아 이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을 지양했다.
아울러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고 전달하는 식의 건조함을 배제하고, 주제 속에 내포된 불교정신과 역사성, 의미 등을 드러내 독자들이 온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일문, 교양서의 성격을 띠지만, 그런 류의 책들이 보통 취하는 형식과 글쓰기에서 확연히 벗어나 있다. 틀에 짜인 구성과 서술이 아니라, 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주제들이 나타나고 설명되

며, 글쓰기 또한 무미건조한 서술에서 벗어나 문학적이면서도 절제미가 어우러진 독특함을 맛볼 수 있다.
첫 번째 책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는 석가모니의 생애에 대한 책이다. 그중에서도 출가 이전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물론 경전을 비롯해 석가모니 생애를 다룬 책들은 꽤나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그의 유소년기 생활과 성장기의 수련 및 학습 등에 대한 복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망되어야 하는 이유는, 싯다르타의 출가가 이미 운명지어졌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적 실존인물로서의 싯다르타, 한 인간으로서의 싯다르타가 출가해 대성인, 붓다가 되기까지에는 그에 맞는 인연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화려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싯다르타가 문전걸석하는 구차한(?) 사문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과 배경은 어떤 형태로든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현존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자는, 당대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유추해 석가족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가 출가하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을지에 대한 퍼즐을 맞춘다.
그래서 독자들은 다소 미흡할지라도 싯다르타의 유년, 소년, 청년기, 즉 출가 이전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

며, 이를 통해 그가 출가 사문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인과관계 또한 공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책 《스님, 한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는 출가자들에게 대한 이야기이다.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이후, 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모인 대중들에게 승가가 처음으로 형성됐다. 그로부터 2,600여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비구·비구니, 스님 중 승려 등으로 불리우는 출가자들이다.
《청년 붓다, ...》, 부처님의 생애 서술
《스님, ...》, 수행자들 삶 소개
《절, ...》, 사찰이 지닌 의미와 역사 조명
본소의(기워 입을 옷)와 발우 하나로 상징되는 무소유의 수행자, 결망 하나 메고 구름처럼 유행하는 자유인, 이들에 의해 붓다의 가르침이 2,600여년 동안 변변히 이어올 수 있었다.
이들이 붓다의 길을 따르려는 점에서는 한결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나 지역, 종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승가의 태동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출가자들의 치열한 수행의 모습과 구체적인 고생한 삶의 모습, 화합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습 등을 상세하게 전해준다. 이를 통해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수행자들의

치열한 삶의 의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출가자(스님)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
세 번째 책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는 절집 이야기이다. 하지만 본래 출가자들이 머물며 생활하고 수행하는 곳인 절은 승가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또는 민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절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많다. 그리고 그 이름마다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흔히 쓰고 접하는 이름인 사찰, 사원, 정사, 도량, 가람 등에서부터 난야, 정주, 법동사, 출세간사, 정정무국원, 원리약처, 적멸도량, 친근처, 금강찰, 선타, 향찰, 운당, 보우, 금지, 감림, 산사 등 조금은 낯선 이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왓, 짜웁, 곱빠, 아바사, 아라마, 비하라, 바히 등으로 부른다.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개개 사찰에 대한 기록이나 감상이 중심인 반면, 이 책은 '절'이라는 공간이 갖는 역사적·일반적·추상적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 즉 수행공간으로서의 절, 생활공간으로서 정사의 탄생부터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 절 모습과 그들이 갖는 의미를 새기는 데 방점이 있다. 그렇다고 역사성을 지닌 절이나 현실 속의 절에 대한 설명에도 군색하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오랜 세월 '절'이 품어온 가치나 의미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불안과 충동서 벗어나려면... '조화로움' 유지해야

조화로움
저자 스티브 데일러 지음 | 윤서인 옮김
불광 펴냄 | 1만4천원



이 책은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충동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또 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끔 잠깐씩 경험하는 조화로움 마음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
결코 모자람 없는 유명 팝 스타나 최상층 부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약중독으로 죽는 일이 종종 있다. 비어 있는 스케줄과 오랜 대기 시간이 혼자 있는 그들을 스스로 우울과 권태에 빠뜨리는 것이 주 원인이다. 우리 사정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저자는 인간이 마냥 될 수 없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종의 정신 장애라고 말한다. 휴머니아는 이처럼 인간이 앓고 있는 장애를 말한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꾸물거리는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개인은 마치 드넓은 우주에 고립된 행성처럼 공허함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계속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채우려고 한다. 더 넓은 집을, 더 큰 차를, 더 많은 월급을 원한다. 그러나 목표를 이뤘도 만족은 잠시뿐, 다시 불안해져 더 많이 성취하려는 욕망이 피어난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아 증상이다. 이의 또 다른 증상은 끊임 없는 생각의 흐름이다. 이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 이곳 저곳을 휘젓고 다닌다.
잠을 청할 때 몇 시간째 뒤척이며 낮에 있었던 일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 심지어 길에서 얼핏 들은 노래까지 수많은 생각이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어제 실수한 일을 후회하거나 주말에 있을 여행을 생각하며 공상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현재에 살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이 휴머니아 때문에 우리는 끊임이 움직이고 생각에 휩쓸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한다. 이따금 텔레비전만 서너 시간

보았을 뿐인데 진이 다 빠져버릴 만큼 휴머니아는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소모한다. 하지만 전통 생활 방식을 따르는 원주민이나 순수한 어린아이는 휴머니아 증상이 없는 것 같다. 황금에 눈이 멀어 자연을 파괴하는 원주민이나 당장 내일 있을 발표회 때문에 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아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한 인류학자는 아마존 지역에 사는 파다나 인디언들과 생활한 뒤 "그들은 우울증이나 만성피로, 극단적 불안 등 현대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 질환의 증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나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조용히 있으면서도 불만이나 욕구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원주민들이 휴머니아를 겪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불안에 쫓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구, 자연, 동식물, 타인이나 '나'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으므로 당연히 소유나 재산에 대한 개념도 없다. 세상과 떨어진 '나'가 아니기 때문에 휴머니아, 인간이 앓고있는 장애는 휴머니아 탈출의 비상구

잠양 권체가 전하는 '사법인'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종서로 잠양 권체 지음 | 이기하 옮김
평세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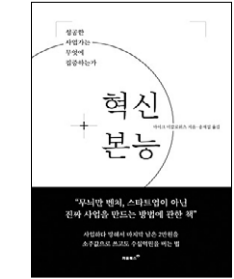


이 책은 불교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핵심 진리인 사법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불교 입문서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불교인은 사법인을 인생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불교의 형식적인 측면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절에 다니지 않아도 사법인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려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불교인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불교 의식에 적극적이라 해도 생각과 행동이 사법인에 어긋난다면 불교인이라 할 수 없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하

는데 불가피하다면 굳이 불교인임을 내세울 필요도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단지 사법인을 진리로 삼아 실천하기만 하면 불교인이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부처님의 네 가지 진리, 즉 사법인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비소리이다. 이 책의 저자 종서로 잠양 권체는 티베트 불교의 영적 스승이며 세계에서 인정받는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난 그는 일곱 살 때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잠양 권체 왕포(1820~1892)의 세 번째 환생자로 판명되었다.
불교 수행과 함께 영화 공부를 하던 중에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를 만나 그의 영화 <리틀 부다>에서 고문을 맡으면서 영화에 입문했다. 또한 그는 티베트와 인도에 있는 종사르 사원 네 곳에서 2,000여명의 스님들을 돌보고 있고, 세계 곳곳에 수행 센터 '싯다르타의 의도'를 만들어서 서양과 동양의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인생 성공은 마음혁신 할때 가능"

혁신본능
마이크 미칼로워츠 지음 | 송재섭 옮김
처음북스 펴냄 | 1만5천원



모든 사업가들이 미디어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미디어의 사랑을 받는 사업가들은 우리에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기업을 안겨준 10억분의 1의 기적의 사업가들이다. 우리 대부분은 혁신적 창업가가 될 운명이다. 세 마디의 두루마리 휴지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키는 단호한 혁신가들만이다. 마이크 미칼로워츠는 당신이 사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건 세 마디 두루마리 휴지라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혁신적 창업가는 미디어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에 집중한다. 화장실에 큰일 보러가서 몇 마디 남지 않은 휴지를 보고 어

떻게 뒷일을 처리할지 고민하듯 이 말이다. 사업을 위한 자원이 많을수록 사업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적은 자원은 사업가의 혁신 본능을 자극하는 열쇠이다.
이 책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울 것이다.
"왜 사업 계획은 완전한 시간 낭비인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세 마디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한가" "미루기 위한 변명을 그만 두고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하는 법" 등등이다. 당신의 성공은 모두가 따르는 유일한 접근 방식을 과감하게 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당신이 마음과 주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어떻게 불가능을 단호하게 현실화하는지도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포기한 채 여분의 자원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때야 당신의 성공이 보장된다. 이런 지식을 습득하고 사업에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들은 소수 정예의 자랑스러운 혁신적 창업가들이다. 김주일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기iban
나만의 명상용 기iban
기iban 활용법까지 상세한 설명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층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기iban
상용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기iban
기iban 활용법과 명상, 진정할 나만의 명상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시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법 /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